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

여전히 경제 高手... “코스피는 중국 영향 못 피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화제가 됐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는 자신의 예측과 달리 주가 등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신이 아닌 이상 6개월, 1년 정도의 사이클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을 변론했다.

박씨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1년전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예측이란 현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던 지난해 말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500선이 붕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당시 투자자들과 금융권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촉발했다.

그는 “진보나 보수나 하는 이념적 색채를 떠

나 경제상황 자체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다”며 당시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예측과는 달리 국내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으로 들어 가야 할 자금의 국내 유입을 회복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박씨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많은 부분 견인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중국 경기의 하락에 대비해 한국, 대만 등 주변 국가에 분산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재정정책에 따라 코스피지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근황을 묻는 말에는 “재판을 준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유학 등 그밖의 일들은 재판이 다 끝난 뒤에나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짜 미네르바설’에 대해 박씨는 “음모론이다. 사람들은 음모론에 호기심을 갖고 잘 믿는 경향이 있다”며 일축

했다.

박씨가 지난해 체포되고 난 뒤에도 일각에선 미네르바의 글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금융 실무자의 은어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힘든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는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모 언론에 경제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는 박씨는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로 부동산 가격을 꼽으며 “작년 금융 리스크가 올해 부동산 등 실물경제로 옮겨진 상황”이라며 “가계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주거나 환율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박씨는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하려면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장애인정보화협 기부금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지점장 이상길) 직원들과 문화센터 회원들은 3일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광역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한마음 잔치를 베풀었다.

광주시,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세정기 설치



광주시 계약심사와 직원들이 2일 이동복지 시설인 광주체육원을 방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소독세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에 이상갑 변호사

민중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3일 제6대 지부장에 이상갑(사진) 변호사를, 사무국장에 김정호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 지부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변호사 개업했으며 소록도 한센병력자 대일본 보상 청구소속 한국변호인단 간사, 사형제 위헌 헌법소송 공동변호인단 주심변호사 등을 맡았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사무국장은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 변호사 개업하고서 전 한총련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사건 변론활동을 벌여 왔다. 한편, 이날 창립 10주년을 맞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오는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인권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민병철 선플 이사장, 건국대 언어교육원장 임명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인 민병철 교수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을 맡게 됐다. 건국대는 최근 민 교수를 국제학부 정교수로 임용, 언어교육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철단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 어학교육 훈련으로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민 교수는 지난날까지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100만부 이상 보급된 ‘민병철 생활영어’의 저자이며 TV 방송 영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민 교수는 지난해 노던일리노이대학에서 ‘올해의 동문상(Alumnus of the Year)’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성균 광주국세청장 '학생세금 문예작품전' 시상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광주 동아여중을 찾아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

이는 동아여중이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공모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응모한 데다 입상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매년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 꾸준

한 열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이날 “경제발전의 원동력, 세금”이라는 글짓기로 국세청장 동상을 차지한 2학년 배가솔양을 비롯한 6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동아여중은 이번 공모전에서 국세청장상 1명, 광주지방국세청장상 5명 등 총 48명이 입상했다. /정필수기자 bungy@

“내달 출간 차기작 주인공은 한국인 김예빈”

한국 찾은 佛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다음 달 프랑스에서 출간한 신작 소설의 주인공은 한국인 김예빈입니다.”

“개미”, “뇌”, “나무”, “신”(열린책들 펴냄) 등의 소설로 한국 독자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48)가 한국을 찾았다.

작가의 이번 방한은 총 6권으로 된 장편소설 ‘신’의 완간과 100만 부 돌파를 기념해 이뤄졌다.

“‘신’ 시리즈는 완성하는 데 9년이 걸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우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규모뿐 아니라 이야기의 복잡성 면에서 굉장히 큰 작품이죠. 사

실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작가로서는 매우 즐거운 일이기도 했죠.”

특히 ‘신’에는 위안부였던 할머니를 둔 한국인 은비가 등장하는데 작가는 곧 출간될 차기작에서도 남자 주인공으로 한국인 ‘김예빈’을 등장시킬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일본에 갔을 때 우연히 위안부 분들의 시위를 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책을 낼 때마다 조금씩 한국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새 소설 ‘카산드라의 겨울’은 컴



퓨터 천재인 김예빈이 등장해 여주인공 카산드라와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합니다. 김예빈은 열린책들 사장님 아들 이름에서 따왔습니다(웃음).”

작가의 작품은 전세계적으로 1천5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그중 한국에서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베르베르는 5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팬 사인회를 열고 7일에는 고려대에서 ‘창의력과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예정했다. /연합뉴스

“결혼 반대했지만 아들의 진심 변함없어 허락했다”

김봉호 전 국회의장, 故 장진영 조문

김봉호(74) 전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자신의 며느리가 된 故(故) 장진영의 빈소를 3일 찾아 조문했다.

김 전 부의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가족과 함께 장진영의 빈소가 마련된 풍

납동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국화꽃을 영정에 바치고 고인을 애도했다. 김 전 부의장의 아들 영균(43)씨는 지난

1일 위안으로 숨진 장진영과 지난해 1월부터 교제해왔으며, 올 7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장진영이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성북구청에 장진영과 혼인신고를 했다.

장진영 측은 “양측 가족이 충격을 받았지만 곧 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

아들이기로 했다”며 “김 전 부의장께서 오늘 조문을 결정하신 것도 고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뜻 아니겠나. 우리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의장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번 민투했지만 아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마음이 변치 않자 심정을 이해했다. 아들이 내린 결정이 잘 된 것이라 생각해 가족 입장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이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피로연 6일(일) 낮 12시 삼희식당(구 현대극장 맞은편))

▲김태규씨 장남 진(화순 전남대 병원)군 양희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 20분 메리아트 웨딩홀 1층.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4회 동창회(회장 이상식) 월례회=4일(금) 낮 12시 금강산. 062-224-0808.

▲북성중 제6회 동창회(회장 이창균) 월례회=6일(일) 오후 6시 30분

어부 만복이(파레스호텔 2층). 062-222-5254.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양정운) 월례회=7일(월)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향우회

▲재광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6일(일) 오후 7시 두암동 한우촌.

▲경주김씨 재광 이사(회장 김두석) 월례회의=7(월) 오후 6시 동구 금남로 4가 백운산 회관. 062-222-4569.

종친회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4일(금) 오전 11시 농성동 신정.

▲여흥민씨 광주시지부 종친회

(회장 민병후)=5일(토) 오전 11시 대인동 화랑군회관.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화(회장 이태고)=7일(월) 오후 6시 30분 화랑궁식당. 018-616-575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빛고을대학생도시봉사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5일(토) 10시 광주 NGO센터.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2009 자원봉사 정책토론회=긴급지원가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방안 모색, 10일(목)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나로우주센터, 소록도, 능가사 방문 등 가족문화탐방 실시=6일(일) 문화전당역에서 오전 8시 출발, 오후 8시 도착, 광주불교교육원(062-228-9098)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ld.or.kr

모집

▲전통주 과일주(와인) 제조법 수강생 모집=9일(수)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매주 수요일) 호남대 평생교육원. 010-4568-0700.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

일 오후 7시~10시 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부음

▲황정순씨 별세 이윤성·송미·함미씨 모친상=발인 5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순태씨 별세 명희·숙희·애정씨 부친상=발인 5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이국씨 별세 주신·주용(전남대 자연과학대 교수)·정옥·숙희씨 부친상=발인 5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임성후씨 별세 덕혜·채진씨 부친상=발인 4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이인표씨 별세 충기·충원씨 부친상=발인 4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서용택씨 별세 동철·은희·은주씨 부친상=발인 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